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수 10am
	ACA	김행자	목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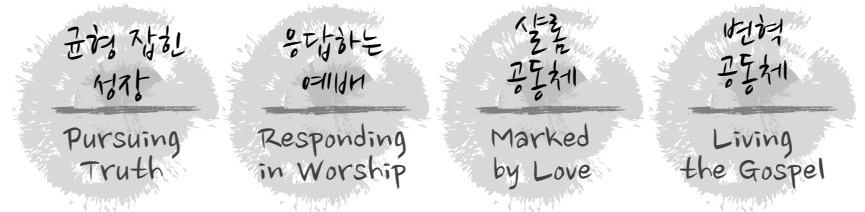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윌라멧 A, 자매: 윌라멧 C,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8/6	8/13	8/20	8/27
헬로우십 다과	레바논 선교보고회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레바논 선교보고회	신윤선,이주영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최설아 /김새롬,전혜경	장경민,박주애 /박영미,윤재연
주차 봉사	변상윤/Tom Flynn	이종천/김민수	Rick Geib/대호	Chris Steenkolk /이장춘
예배 안내	바마코 (8월) & 우간다 (9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제자의 특색: 온유

Mark of Disciples: Gentleness

본문: 에베소서 4:1-6

설교: 카를로스 페르난데즈 목사

에베소서 4장 1-6절

- (1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 (2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 (4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 (5절)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데 이것이 ‘친절함,’ ‘평화’ 등등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핍박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면서, 특히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르심은 개인적인 소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받은 ‘제자를 만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2. 당시 사회에서는 온유한 것은 나약하거나 자신이 없는 자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적으로 강건한 가운데 겸손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몸 전체를 통해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3.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겸손과 사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먼저 내적으로 강건해야만 진정으로 온유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 현대 사회에서도 온유함을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전하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내적으로 강건한 가운데 드러나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1.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나 자신이 더 온유해야 하는 경우가 어느 때입니까?
3. 사랑과 온유함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온유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4. 다른 사람의 온유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오늘 한인 헬로우업 (8/6)

오늘 (8/6)은 매 예배 후, 레바논 단기 선교보고회가 있으며, 한인 헬로우업이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선교보고회에서는 아침/점심식사가 준비됩니다. 통역이 있으며, 예배시 사용하신 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하신 후, 모임을 마치면, 체육관 스테이지쪽 박스로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2. 금주 한인부 수요일예배 (8/9)

금주 한인부 수요일예배 (8/9)는 에덴장로교회와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유치부와 어린이 돌봄이 있습니다.

- 일시: 8월 9일 (수) 7:30pm
- 장소: 에덴장로교회 (1200 SW 185th Ave. Beaverton. OR 97006)
- 강사: 이종덕 선교사 (유럽내 시리아 난민사역자, IMB)

3. Missional Awakening (8/13)

Missional Awakening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 삶의 자리에서 민감하고 신실히 반응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상기하는 기회입니다. 금번에는 오랜 기간동안 시리아와 요르단에 사역하시다가, 최근 독일로 이동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계시는 이종덕 & 이현정 선교사님 (시리아 목장 동역 선교사)을 모시고, 유럽내 난민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귀한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간단한 점심이 준비됩니다. 참고로, 이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내용은 수요일예배에서 나누어지는 내용과 다른 별도의 내용입니다.

- 일시: 8월 13일 (주일) 2pm - 3:15pm
- 장소: Willamette A & B (어린이: Willamette C)
- 문의: 시리아 목장 (이청호 목사)

4. 날마다 솟는 샘물 (8월호)

8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업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이번주 고등부 집회 “MOVE”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능력 부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 2) 연이은 폭염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지역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지역사회와 더불어: 반즈 초등학교 환경미화 (Community Care Day)

올해는 반즈 초등학교와 미도우 파크 중학교, 두 곳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가여부를 알려주시고, 실내와 실외 청소용품을 준비하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8월 19일 (토) 9am - 12pm
- 장소: Barnes Elementary School & Meadow Park Middle School
- 참가 신청: <https://vbconline.wufoo.com/forms/community-care-day-rsvp/>

3. 어린이 사역 리더십 훈련 (9/9, 9-11am @ Fellowship Hall)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을 위한 리더십 훈련이 있습니다.

4. 아이와 함께 하는 하이킹 (8/15(화), 9:30am @ Orchard Park)

유모차로 다닐 수 있는 산책로로 아름다운 연못과 오리를 볼수 있으며 화장실과 놀이터가 있습니다.

- 주소: Orchard Park: 20900 NW Amberwood Dr, Hillsboro, OR 97124

5. 여성부 하이킹 (8/12(토), 9:30am @ Hoyt Arboretum)

3마일의 비포장 산책로로 방대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4000 SW Fairview Blvd., Portland (Visitor Center in Hoyt Arboretum)

6. 여성부 기도회 (매주 목요일, 10-11:15am @ Deschutes Room)

여성부는 매주 목요일 교회와 개인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첫번째 목요일은 빌리지의 다문화 공동체의 사역과 필요에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문의 : Denise Phillips, deebillph@gmail.com)

7. 패밀리 캠프 기간 중 교회 사무실 시간 변경

8월 7일(월)부터 8월 14일(월)에는 교회 사무실이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만 엽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레바논 리포트



슈크란!

아랍어로 “감사합니다” 입니다.

먼저 레바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동역해주신 형제님, 자매님들께도 큰 감사드립니다.

제가 레바논에 간다고 처음 들으셨을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갑자기 정하게 된일이라 어리둥절 했습니다만 훈련 과정을 통해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안에서 이루어 진것임을 확신 할수 있었습니다.

세심한것도 잊지 않으시고 계획하시고 예비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이 사역팀은 베이루트와 사이드 이라는 곳에서 각 4일씩 2번의 캠프를 열었습니다. 주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위주로 Heart for Lebanon에서 운영 하고 있는 학교, Hope school, 학생들과 하루는 난민 텐트촌에 살며 학교에 다니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캠프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하며 저는 제가 무엇을 나누어 주고 올수있을까를 생각했었지만 정작 돌아올때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오는지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저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올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불러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내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며 내가 중심되어 살아온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느낄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온 자녀들로 인해 기뻐하셨을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분들이 다시 그곳에 돌아가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 마지막날 학생들과 그곳 선생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고 키스해주며 물었습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Are you coming back next year?”

그 순간 저는그친구에게 당당히 말할수 있었습니다.

“Yes, I am!”

유정현 자매

사랑하는 빌리지 형제,자매님

해마다 여러분의 동역으로 레바논과 그 인근의 나라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신것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런 많은 “그 분의 이야기들” 가운데 한가지를 오늘 나누고자합니다. 사역이 끝날무렵 ‘시리아 어린이 사역자 리더 컨퍼런스’에 참가하기위해 시리아에서 온 14 명의 리더들을 만나 현재 그곳의 상황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의 피해가 가장 큰 ‘홈즈’ ‘알레포’ ‘라타키아’에서 오셨고 또 그곳에서 현재 사역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원래 그곳이 흉터운인 사람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많은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 전시중인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불어선생님, 변호사, 엔지니어, 연극배우, 주부등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그들 자신이 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하루 아침에 집이 잿더미가 된 아픔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각각의 이야기를 듣는데 몇가지 공통된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물론 수많은 시리아 아이들이 전시중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나갈곳도 없고, 놀것도 없고 폭격과 폭탄 파괴의트라우마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는 이런 생사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곳에 남아 사역을 하고있는 가장 큰 동기는 사역자인 자신들조차 신학적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어떤분인지 가르쳤던것을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 참으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경험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자신들에게 전쟁의 Benefit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째는 지도자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지도자들을 양육할수 있는 기회가 드물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 훈련과 양육을 받은 지도자들중 이런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주, 이동이 잦아 언제나 리더가 부족하지만 떠나는 그들을 붙잡거나 blame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는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대표인 Anto 부부와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2~3가정이 시리아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리더들을양육하고 돌보는 상황입니다.

짧은 이 나눔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전쟁속에 던져진 시리아의아이들과 폭격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위해 그곳에서 목숨을 담보로 사역하는 리더들을 향한 우리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남우 자매